

최저 129km '느린 직구'... '관록' 양현종의 새 무기

직구 구속차 17km...최고 146km·최저 129km

“강하게 억박지르는 것 한계...캠프 때부터 연습”

30대 중반에 접어든 '대투수' 양현종(35)이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다. 바로 '느린 직구'다. 프로 무대에서 17년째 뛰며 쌓인 관록이 있기에 가능한 무기다.

양현종은 지난 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벌어진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8이닝 동안 6개의 안타와 1개의 볼넷만 내주고 SSG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삼진은 무려 10개를 속아냈다.

동갑내기 라이벌이자 나란히 국내 최고 좌완 투수로 꼽히는 김광현과의 선발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 김광현은 6이닝 6피안타(1홈런) 6탈삼진 2볼넷 3실점을 기록하고 패전 투수가 됐다.

KIA의 3-0 승리를 이끈 양현종은 개인 통산 161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정민철과 함께 통산 다승 부문 공동 2위로 올라섰다.

양현종이 이날 경기에서 던진 101개의 공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개가 직구였다.

눈에 띄는 것은 직구의 구속이었다. 최고 구속은 146km, 최저는 129km로 차이가 시속 17km에 달했다. 예상치 못한 느린 직구에 SSG 타자들은 허를 찔린 모습이었다.

양현종은 7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박성환을 상대하면서 직구만 4개를 거푸 던

졌는데, 구속 차가 15km에 달했다. 혼란 속에 타이밍을 빼앗긴 박성환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대부분의 투수들은 직구에 변화구를 섞어 던지며 완급 조절을 하지만, 양현종은 직구만으로 이를 해내며 타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느린 직구'는 20대 때처럼 직구의 힘만으로 타자를 압도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양현종이 찾아낸 생존 비법이다. 물론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질 수 있는 제구력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한 전략이다.

양현종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억박지르는 것 한계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대한 완급 조절을 하려고 노력한다”며 “전체적인 밸런스가 나쁘지 않아서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질 수 있었다. 체력이야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릴 때와 같은 구속이 나오지 않아서 공부하고, 스프링캠프 때부터 연습을 했다”고 덧붙였다.

느린 직구를 간간히 섞어던지며 체력을 아낄 수 있다면 양현종은 앞으로도 더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

양현종은 이날 경기에서 2020년 10월 18일 잠실 LG 트윈스전 이후 933일 만에 8이닝



9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3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SSG 경기, 선발투수 양현종이 역투하고 있다.

이상을 던졌다. 또 올해 양현종은 5경기 중 3경기에서 7이닝 이상을 소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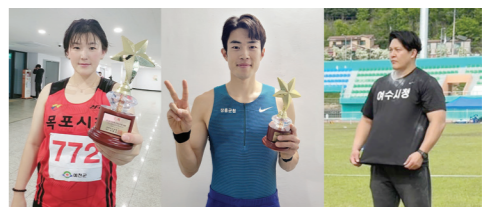
완급 조절을 앞세우면서 2020년 9월 4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6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은 이후 977일 만에 두 자릿수 탈삼진도 기록했다.

더 오랫동안 던지기 위한 무기를 장착한 양현종은 이제 통산 다승 1위 기록을 향해 조금씩 나아간다. 통산 다승 1위는 송진우가

작성한 210승이다.

양현종은 “목표가 멀리 있지만 쫓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다음 경기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몸이 예전같지 않지만 자신있다. 항상 이기려고 하는 목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게을리 하지 않고 매 경기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슬비기자



전남 육상 박서진(목포시청 왼쪽부터), 김장우(장흥군청), 정일우(여수시청).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

육상 박서진·김장우·정일우,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표 유력

전남 육상팀 박서진(목포시청), 김장우(장흥군청), 정일우(여수시청)가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며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전남도체육회는 경북 예천군에서 열린 제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 겸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박서진, 김장우, 정일우가 금메달, 김은미(여수시청)가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박서진은 이번 대회 여자일반부 해머던지기 1차에서 55.22m, 2차에서 56.71m, 4차에서 56.72m를 기록했다. 이어 5차시기에서 60.12m를 던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일반부 세단뛰기에 출전한 김장우는 16.37m를 뛰어 16.19m를 기록한 유규민(익산시청)과 15.37m의 이민제(한국체육대)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김장우는 종전기록인 16.31m를 뛰어넘어 대회신기록도 달성했다.

정일우는 남자일반부 포환던지기에서 출전한 17.81m를 기록해 심준(국군체육부대·17.65m), 지현우(파주시청·17.26m)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수시청 김은미는 여자일반부 1만m에 출전한 34분54초54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 금메달을 수확한 3명은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도 메달을 수확하면 오는 9월에 열리는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표팀 발탁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전남 유도 꿈나무 박예지·김재홍, 전국대회 금·은 수확

“울산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서도 메달 획득 기대”

전남 유도 꿈나무 박예지(순천신흥중)와 김재홍(신흥중)이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충북 청주 정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박예지가 금메달, 김재홍이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박예지는 이번 대회 여자 중학부 -52kg급에

출전해 16강에서 조예은(옥천여중), 8강에서 이시은(경기체육중)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도 부다영(성산중학교)을 손기술로 한판승을 따내 결승에 진출해 조효진(광주체중)마저 한판승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재홍은 초등부 -36kg급에 출전해 32강에

서 안수민(대전전동중), 16강에서 최시우(부안공명유도관), 8강에서 김동하(신정초), 준결승에서 강민구(동남초)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최원준(울림피안유도관)에 한판을 내주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전남지역 유도 유망주들이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수확해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서도 메달 획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전남 유도 꿈나무 순천신흥중 박예지(사진 가운데).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체중 사격 전국대회서 금메달 등 메달 3개 수확

광주체육중학교가 전국 사격대회에서 금메달 등 메달 3개를 수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체중 사격팀이 대구사격장에서 열린 제6회 대구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체중 조은준·김유환·김유준·이준혁은 이번 대회 중등부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 출전해 1677점을 기록해 1670점을 쓴 북대중을 7점차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이준혁은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564점으로 결승에 진출했지만 결승에서 성당중 김도영과 맞대결에서 패해 은메달을 가져왔다.

광주체중은 여자 중등부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3위를 기록했다.

광주체중 이준재 교장은 “이번대회를 앞두고 학생들의 심리 훈련을 많이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오는 27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동신대 세팍타크로 전국대회 4인조 우승·3인조 준우승



“비인기 종목 어려운 여건서 선전”

“다음대회서도 좋은 성적 낼 것”

동신대학교 세팍타크로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동신대는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이 대전 대덕문화체육관과 이문고 체육관에서 열린 '2023 시·도 대항 세팍타크로대회'에 참가해 남자 대학부 퀵드 이벤트(4인조)와 레구 이벤트(3인조)에서 각각 우승,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광주 이정호 감독, '매너볼' 관련 “잘못인가요”

프로축구 K리그1(1부)에서 초반 돌풍을 이어가던 광주FC가 주춤한 모습이다.

광주는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12라운드에서 1-3으로 패했다.

지난 3월 첫 맞대결에서 0-2로 패한데 이어 다시 한 번 서울의 벽에 막혔다. 광주는 최근 5경기에서 2무3패로 승리가 없다. 4승2무6패(승점 14)로 7위에 자리했다.

이정호 광주 감독은 “오늘 선수들이 감독의 체면을 살려준다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 때문에 몸에 좀 힘이 들어간 것 같다”며 “생각보다 우리가 준비했던 만큼 안 나온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책임이다. 선수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데 제가 생각을 못한 것 같다. 열심히 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원정에

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끝까지 잡혀왔다”고 덧붙였다.

후반전 '매너볼' 상황이 있었다.

서울 선수가 넘어진 상황에서 서울은 공격 대신 사이드라인 밖으로 공을 걸어냈다. 이런 경우 새롭게 공격권을 가진 상대가 공을 밖으로 걷어낸 쪽에 다시 공을 건네는 게 매너로 통한다.

선수의 부상이 심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로를 배려하는 장면이다. 물론 의무는 아니다.

광주는 다음 공격에서 서울에 공을 전하지 않고, 정상적인 플레이를 진행했다. 서울 팬들은 आयु했다.

이와 관련해 이 감독은 “우리 선수들에게 경기에 이기고 있어야 시간을 지연하지 말라고 한다. 팬들은 넘어지거나 시간을 지연하

는 모습을 보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시간에 집중하도록 지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 선수가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숙지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경기를 속개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인가. 우리 선수들이 잘못된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또 “큰 부상이 있었으면 당연히 중지했겠지만 근육 경련으로 판단하고, 그냥 했던 것 같다.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에 대해선 “우리의 실수가 좀 많았던 것 같다. 서울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K리그2(2부)에서 승격해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켰지만 최근 승리가 없어 가라앉은 모양새다. 승격팀의 고비다.

이 감독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전 4경기 선 경기력이 좋았는데 끝이 없었다. 오늘은



승장인 안익수 서울 감독은 “양 팀이 많은 팬들 앞에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상황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했다. 서울의 다음 상대는 12경기 만에 10승(1무1패) 고지에 오른 선두 울산 현대다.

안 감독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 선수들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상황들을 팬들에게 보여준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력도 안 좋아서 선수들이 기가 죽을까봐 (기름) 더 살려줘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잘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했다.

‘높이뛰기’ 이상혁, 2m32 성공...전국육상대회 우승

높이뛰기 이상혁이 9일 경북 예천 스타디움에서 열린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 대학·일반부 높이뛰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상혁은 이날 경기 첫번째 점프에서 2m16을 넘어 1위를 확정했다. 두번째 점프에서는 2m32를 넘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출전권 획득에 청신호가 켜졌다.

2m32를 성공한 이상혁은 세리머니와 함께 밝은 표정을 보였다.

올해 8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을 목표로 세운 이상혁은 오는 21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 세이코 골드 그랑프리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최이슬기자